

2013년 회원 정기총회 일정 확정

정관개정, 올해 예산안 등 주요 안건 처리

2월 26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2013년 회원 정기총회가 2월 26일(화) 오전 11:00에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정관개정(안)과 함께 2012년도 결산과 2013회계년도 수지예산(안) 확정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한다.

2013년 첫 이사회 개최

정관개정안 경과보고, 사무처장 임기도 3년으로 조정

한편 사우회는 올해 첫 이사회를 1월 14일 사우회 사무실에서 열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총회개최와 정관개정에 관한 경과보고 및 개정내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또 2013년 회원 정기총회를 2월 26일(화) 오전 11시에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또 사무처장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줄여 상임부회장-총무이사의 임기와 같이 하자는 안을 논의했다. 이사회는 이밖에 고문 추대건에 관한 의견도 나누었다.

2012 사우회 송년의밤 대성황

김회장, MBC지원에 감사하며 사우회를 따뜻한 사랑방 만들겠다
안MBC부사장, 반드시 최고 방송 만들어 선배들 자부심에 보답하겠다

12월 13일 가든 호텔에서 개최

사우회 '2012 송년의 밤' 행사가 12월13일 (목요일) 저녁 6:00에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열렸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되돌아보고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과 정다운 대화를 나누는 이날 '송년의 밤'에는 588명의 회원이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주 행사장인 무궁화홀 좌석이 모자라 옆진달래홀로 회원들을 안내하는 교육책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우회에서 김수량 회장과 박근숙 명예회장, 노서을-이수홍-서규석-이만우-우윤근-김민식 고문, 강성구 전MBC사장, 그리고 올해 92세인 황의영 원로회원이 일찍부터 자리를 함께했으며 지난해 6월과 9월에 MBC를 정년퇴직하고 12월에 사우회에 가입한 김영성-이기한 (이상 기

술부문) 회원이 처음으로 사우회 행사에 참석해 선배 회원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기도 했다.

이현우(Ann) 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송년의 밤'에서 김수량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MBC는 사우회 회원들의 마음의 고향이자 청춘이 녹아 있는 곳"이라며 MBC의 지원에 감사사를 표한뒤 "사우회가 내년에도 따뜻한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더 큰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MBC 안광환 부사장은 "MBC를 1등방송으로 키운 선배들을 만나면 언제나 마음이 찡해진다"면서 지금은 "MBC가 어려운 상황임에 틀림없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최고의 방송으로 만들어 선배들의 자부심에 보답하겠다"고

2면에 계속

신년사

“우리들 마음의 고향 MBC를 훈훈하게 데우는 군불 역할 합시다”



2013년 계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MBC 사우회에 베풀어주신 회원들의 협조와 관심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사우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2년을 되돌아보면 우리 모두 쉽지 않은 삶을 살았고, 본사는 더더욱 힘든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MBC는 우리의 젊음과 피와 땀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곳입니다. MBC는 우리들 마음의 고향입니다. 본사의 미래를 위해서, MBC를 훈훈하게 데우는 '군불'의 역할을 변함없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오래된 정관과 회무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 정관개정안이 마련되어 다가오는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

시행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우회원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개선하고, 필요한 것을 열심히 찾아 볼 것입니다. 동호회 활동은 사우회 발전의 토대입니다.

올해는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어 사우회가 옛 시골의 사랑방처럼 누구나 언제든 부담 없이 찾아오는 행복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에도 우리를 둘러싼 삶의 환경이 결코 밝지 않습니다.

각박하고 경쟁적인 사회 환경에서 여유로운 삶을 느끼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덕불고(德不孤) 필유린(必有隣)'이라는 말이 있듯이, 새해에는 모두가 욕심을 버리고 많이 베푸는 후덕한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입니다.

국민이 감동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며, 사우회원들의 가정에도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MBC 사우회 회장 김 수 량

신년사

“우리의 1등 DNA 반드시 찾아오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사우회 여러분의 가정에 밝고 희망찬 일들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2011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그룹 전체 매출 1조 8

천억 원을 달성했고, 영업이익 1천 3백억 원, 시청률 8.2퍼센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개월 장기 파업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크게 추락했습니다. 그 결과 2013년은 회사 경쟁력 회복이 가장 절실한 때입니다. 올 한 해 회사는 반드시 1등을 탈환한다는 각오로, 프로그램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지난 51년간 쌓아놓은 우리의 1

등 DNA를 꼭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올 한해 제작부문에 대한 투자를 더욱 강화하고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킬러 콘텐츠 기획과 포맷 개발에 매진할 것입니다. 또 2013년 화두인 '혁신'과 '여성'을 주제로 시청자의 트렌드를 읽어

내는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류 확산의 전진기지로서 특집 다큐멘터리 <대장금 그후 10년>, 대형사극 <구암 허준> 등을 제작하고, 유럽, 미국, 일본, 동남아 등 세계 각지에서 <K-POP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 MBC 슬로건은 '열정 MBC, 열정 대한민국'입니다.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과 경제 위기 속에서 새 시대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열정적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열정과 꿈이 있는 국민을 응원하고 초심의 MBC로 돌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는 7, 8월에는 2014년 1월 1일부터 송출을 목표로 상암 신사옥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MBC 상암 시대를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올 한해 임직원들은 한마음이 되어 그 어느때보다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사우회 여러 분들도 저희들의 노력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문화방송 대표이사 김 재 철

8시가 달라졌다

MBC 뉴스데스크

매일 저녁 8시

회원에 선물세트, 다이어리, 수첩 증정
원로회원부터 신참까지 588명 참석



▶송년회밤에는 어느 해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주 행사장 옆 무궁화홀까지 좌석을 마련하는 등 바쁜 하루였다.

1면에서 계속 다짐하기도 했다. MBC에서는 이날 모임에 참석한 모든 회원에게 최상품 해산물세트 한 상자와 2013년 다이어리 한 권씩을 증정했으며, 사우회에서는 2013년 회원 수첩 한 권씩을 배부했다.

2012 송년의 밤 이모저모

개그맨 서승만 사회, 인기가수 열창에 분위기 업돼

이날 송년의 밤 행사는 개그맨 서승만이 등장해 여흥을 이끌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트로트계 신인 가수인 숙향이 분위기를 잡고 퇴장 한뒤 인기 가수 박남정이 등장해 특유의 현란한 춤을 곁들여 “널 그리며” “사랑의 불시착”을 부르자 관리부문 여성회원들과 아나운서 부문 여성회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양팔을 들고 환호해 장내 분위기는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뽀빠이까지도 행운권 추첨. 주광순(관리) 회원을 시작으로 모두 30명이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상품권을 받아가는 행운의 주인공이 됐다. 이어 150만원 국내여행권 추

첨의 첫 행운은 관리부문 장기태 회원이 번쩍 손을 들고 단상 앞으로 뛰어나와 만장의 박수를 받았다. 이어 정재호(관리)-최순근(편제)-이명자(편제)-마병두(편제)-정영수(관리) 회원 등 모두 6명이 영광을 차지했다. 그리고 송년의 밤 하일라이트 200만원 해외 여행권 추첨 시간, 긴장과 흥분이 더욱 고조되기 시작했다. 주인공은 기술부문의 김경로 회원을 필두로 편성제작부문의 황기찬 회원, 관리부문 최병태 회원에게 대박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마지막 한사람, 이날 송년의 밤 행사 최후의 행운을 차지 할 주인공을 뽑을 차례, 장내는 잠시 숨죽은 듯 조용했다가 다시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행운권추첨 ‘행운의 여신이 내 손 잡아줄까?’
상품권 30명, 국내여행권 6명, 해외여행권 4명 등에 대박 선물

419번, 업무부문의 김용현 회원이 “여기요” 하면서 뒤쪽에서 달려나왔다. ‘와’ 하는 함성과 탄성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이렇게 ‘2012 MBC사우회 송년의 밤’ 행사는 기쁨과 아쉬움을 뒤로하고 막을 내렸다.

MBC,회원 장례시 MBC로고 장례물품 지원

MBC가 지난해 12월3일부터 사우회 회원이 상(喪)을 당했을때 장례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MBC는 퇴직사우 예우 차원에서 경조규정을 강화하고 이와같이 시행하고 있다.

지원되는 장례물품은 MBC 로고가 새겨져 있는 밥그릇과 국그릇, 플라스틱수저, 나무젓가락, 종이컵 그리고 비닐 상보 등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본인喪, 배우자喪, 본인부모喪이다. 주중에는 사우회 사무처로 연락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말이나 휴일, 공휴일에는 02-789-2390 (MBC 휴일 근무 팀장) 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각 부문 동호회 송년 신년 모임

문미회를 비롯해 사우회 각 동호회가 송년모임을 갖고 회원들간의 유대를 다지고 친목을 나누었다. 미술부 출신 회원들의 모임인 문미회는 동호회 가운데서 가장 먼저 11월10일에 서울 종로구 3.1 빌딩 하이마트 뷔페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문미회가 11월에 송년모임을 갖는 것은 오랜 전통이다. 이어 기술인동우회가 12월4일 마포M펠리스 웨딩뷔페에서 송년모임을 열고 조 정규회원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문비회(비상계획부)는 12월9일 연신내 백제갈비집에서 모여 서로의 건강을 확인했다. 경리인모임은

11.10 문미회
12.04 기술인동우회
12.09 문비회
12.11 경리인모임
12.11 청죽회
12.20 문기회
12.20 인사동클럽
12.22 문우회
01.17 문경회 신년회

12월11일 여의도백화점 1층 고려정에서, 청죽회(시설부)도 12월11일에 종로2가 파노라마뷔페(옛우미관)에서 송년모임을 갖고 한 해를 감사했다. 인사동클럽(라디오PD)은 12월20일 서초동 울돌목에서 만나 회포를 풀었으며 문기회(보도부문)도 12월20일 광화문 KT빌딩지하 오션뷔페에서 송년모임을 갖고 한 해를 정리했다. 문우회(차량부)는 12월22일 여의도 대교반점에서 모여 정담을 나누었다. 광고인출신 모임인 문경회는 유일하게 송년모임 대신 신년회를 1월17일 세종호텔에서 갖고 癸巳년 행운을 소원했다.

사우회 5개 동호클럽 회장단 송년회

김회장, 클럽이 많이 활성화 됐지만 올해도 회원 배가운동에 힘써달라 당부

12월 21일 광화문 토순이집

사우회 동호클럽 송년모임이 12월 21일 (금) 광화문에 있는 토순이 생태 집에서 열렸다. 이날 송년모임에는 낙시클럽 이승문화장과 김종수총무, 등산클럽 박한성회장과 이대교총무, 바둑클럽 신대근회장과 김진홍총무, 골프클럽 김용빈회장과 안재기총무,

그리고 한문공부방 이진세훈장과 박종완총무가 참석했으며 사무처에서는 노서을고문과 김수량회장, 백하현상임부회장, 박종규총무이사등이 참석했다. 김수량회장은 “동호클럽이 예년에 비해 많이 활성화 됐다고 보여진다며 그 기세를 모아 2013년에는 회원 배가 운동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연회비 내신분들

※연회비는 1년에 2만원이며 외환은행 서대문지점 071-13-14297-3 문화방송사우회로 보내주시시오.

평생회비

전진권(편제)11/16	이영생(관리)11/21	김영성(기술)12/10	이기한(기술)12/10
강인숙(관리)12/16	이수향(보도)12/27	문기영(편제)01/02	김승월(편제)01/03

연회비

11월 강철호(13) 김종창(12~13) 송영수(12~13) 오순심(12) 유철환(21, 80세납부끝) 윤건일(10~14) 이승재(12) 이연구(11~12) 이웅재(11~12) 이준호(10~11) 전병욱(13) 전진권(05~11) 정영웅(12) 조석영(11~12)
12월 경진근(11~12) 구종회(13) 김경일(12) 김관영(11~12) 김규수(11~12) 김동성(11~13) 김무길(12~13) 김성한(13) 김순홍(12) 김시용(13) 김원기(13~14) 김재식(12) 김종수(13) 金鍾顯(12) 김종석(12) 김승배(12) 김희을(12) 남궁옥인(10~13) 남익균(12~13) 문성수(13) 박문식(12) 박미숙(12~13) 박승선(11) 박종완(12) 방남순(12) 봉필구(12) 손도정(13) 송인익(12) 신대근(07~11) 양승원(12) 오명균(12~13) 오학식(12) 유혜자(12~13) 윤풍기(13) 이강용(09~11) 이규용(13) 이대교(13) 이동섭(12) 이명숙(10) 이명자(12) 이보근(13) 이상근(12~16) 故이상철(07~10) 이상제(13) 이상수(11) 이소진(12) 이승문(12~13) 이시권(12~14) 이종구(12~13) 이준희(12) 이종구(12) 이한식(14) 임백순(09~15, 80세납부끝) 임부영(06~12) 장두형(12) 장명호(07~08) 장우식(12) 전용수(13~14) 정대용(12) 정병준(13) 정태일(11~12) 조은국(11) 차기동(13) 채규익(11~13) 최대홍(13) 최승우(06~12) 최승일(10) 최영복(13) 최영호(12) 하민웅(12) 하영현(12) 황기찬(12)

신규입회

金永成(기술) : 010-9105-2348 / 031-915-2998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자이A 406-1101
李琪漢(기술) : 010-9105-1235 / 02-458-0336
광진구 구의3동 강변우성A 101-2006
李秀香(보도) : 010-5384-0029 / 02-794-6652
용산구 한남동 686-22
文基英(관리) : 010-9105-1200 / 02-3391-0887
노원구 상계6.7동 미도A 101-1501
金承越(편제) : 010-8972-0453 / 02-780-4519
마포구 상암동 상암월드컵파크 605-501

경조사항

경사

팔순 윤여향(업무)02/01 김포천(편제)03/31	김준철(미주)02/09	이봉우(업무)02/25	김해원(편제)03/07
고희 이용구(업무)02/01 윤호찬(보도)02/19 홍이표(관리)03/13	이종성(전주)02/05 남궁옥인(기술)02/20 윤준구(관리)03/16	조철현(미주)02/07 배종두(기술)02/28 김평안(대구)03/20	권태규(대구)02/15 양홍열(기술)03/13
회갑 이중형(관리)02/02 이성수(보도)03/03	봉필구(편제)02/05 김만섭(기술)03/15	강동균(편제)02/21	박우용(관리)02/27

결혼

최영식(관리)차녀11/25	최영돈(관리)차녀12/01	오양수(관리)차녀12/08
김우룡(편제)차남12/08	정재호(관리)장남12/16	구본홍(보도)딸12/22
우상원(편제)아들12/22	정호준(대구)차남12/23	전용립(관리)장녀01/26

부음

황경자(ANN)모친상11/19	이원호(관리)아들상11/20	권명안(관리)장모상11/30
권오용(편제)장모상12/12	신상용(편제)모친상01/02	이만규(관리)부친상01/05

- 이상설(前감사) : 12월23일(일) 폐질환으로 별세. 향년82세. 2011년 6월부터 폐렴과 폐암이 발견돼 요양해왔다. KBS 편성국장 출신으로 1981년에 MBC 감사로 부임했으며 MBC 퇴사후에는 한국방송개발원 원장을 역임했다.

전화/주소변경

▶ 전화번호 (특히 핸드폰)가 바뀌었거나 주소가 변경되신 회원님들께서는 사우회사무처 (02-722-7416)로 바로 연락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편제|

김동성 010-6228-3263 / 02-2292-5135
김해원 010-5948-3346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219, 120-503 (달빛마을)
박진홍 010-3646-0939

|보도|

이성수 성북구 동소문동7가 23 한신휴플러스A 124-1002
윤호찬 010-8879-8866
전용학 010-5236-9722

|기술|

김원기 010-5716-3383
이상운 강남구 압구정동 481 현대A 94-506
최명구 010-6208-5957

|업무|

이상순 010-3888-65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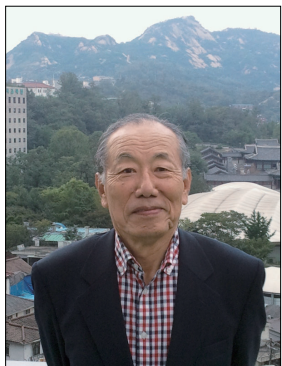
|관리|

김종국 010-6317-2848
김천근 010-7686-8861(부인)
은평구 녹번동 154-30 수연주택 401호
원신애 010-8851-9174
고양시 덕양구 행신3동 서정마을 1102-309
이보근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760-590 건우하이츠 202호
최정일 018-214-5534 02-389-5534
은평구 역촌동 78-6



경로당 다니는 거 생각이나 해 봤수?

신 형 창 (보도)



내가 사는 대원아파트는 일산서구에 자리잡고 있는데, 7개동에 378세대가 입주해 있는 이른바 중산층 아파트 단지이다. 호수공원이 바라다 보이기도 하지만 동간 거리가 멀고 주차장이 넓다고 해서 인기가 꽤 많은 편이며 그래서 그런지 65세 이상 어르신네가 2백명 넘게 살고 있기도 하다. 아침 일찍 보행 보조기를 밀며 걷고 있는 할머니가 2~3명 보이고 지팡이를 짚고 운동을 하고 있는 할아버지도 여럿 보인다.

우리 단지내의 경로당에 가입한 회원은 45명인데 남자회원이 18명, 여자회원이 27명으로 할머니 회원이 절대적으로 많다. 그리고 연령 분포는 1918년생(95세)부터 1944년생(69세)에 이르기까지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남녀 분포와 연령분포를 가진 우리 경로당은 1918년생 최고령 할아버지가 회장을 맡아 왔었는데 갑자기 실버타운에 입주하게 되어 그 후임자를 찾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큰 내가 젊은 할머니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신임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나도 더 늙기전에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서 꽤히 승낙을 하고 받아 들였다.

그러나 막상 회장이 되고나서 느낀것은 생각보다 할 일이 많다는 것이었다. 동(洞)단위의 분회, 구(區)단위의 지회, 구청-주민센터의 연락 등 할 일도 많고 모셔야(?) 하는 윗분들도 많다. 우선 분회장, 지회장, 구청장, 주민센터의 복지와 공무원들, 그리고 국고보조금을 받고 감사도 받으니 감사관들... 귀찮게 생각하면 한이 없겠지만 젊었을때 생각이 나서 약간 흥분되기도 했다.

우리 사우회 회원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아파트 단

지나 일반 주택 단지의 경로당에 관심을 가진사람이 별로 없을것으로 보인다. 몇 달전까지는 나도 그랬으니까... 자기는 노인이 아닌것처럼, 그리고 경로당에는 늙고 지내기가 어려운 할아버지-할머니나 기웃거리는 그런 곳으로 여기고 있을테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사)대한노인회의 방대한 조직과 산하에 있는 5만 2천여개의 경로당과 그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라고 권하고 싶다.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 단지든 65세 이상 노인 20명 이상이면 구청에 경로당 등록을 할 수 있고 등록이 완료되면 매월 국고보조금이 나오도록 되어 있다. 그것도 20명의 회원을 가진 경로당이나 45명을 가진 경로당이나 동일 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모순은 강남의 부자동네 아파트 단지나 시골 가난한 동네 경로당이나 국고보조금이 똑 같다는 것이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지켜보아야 할것은 대한노인회의 조직이다.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구(區)단위의 지회장까지 모두 자원봉사자가 아니며 그 임기가 4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은 경로당 운영 규정에서 고치지 못하고 그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씁쓸함을 금치

할머니들의 절대적 지지로 회장에 당선
대한노인회 조직과 운영에도 관심가져 볼 만
경로당 참여해 봉사하는 것 또한 큰 기쁨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우리 MBC사우회 여러분께 호소하고 싶은 것은 스스로에 대한 사랑과, 우리도 점점 늙어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동네 경로당 운영에 직접 참여해서 봉사정신으로 여러분보다 더 높은 선배들에게 봉사하고, 크게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운영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이다.

나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경로당을 향해 걷는다. 나를 기다리는 할머니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봉사할까를 생각하면서...

/한문공부방/

유하근의 논어 이야기 4



- 진시황과 제갈량과 한비자

진시황이 통일을 위해서 가장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은? 한비자(韓非子)다. 제갈량이 죽으면서 유비의 아들 후주(後主)에게 임도록 권한 유명한 책은? “한비자”다. 한비자가 이렇게 말했다. “신하와 관료들이 법을 안 지키고 사리사욕만 채운다면 이것은 뿔나뿔을 짚어지고 불을 끄려 들어가는 것처럼 혼란과 쇠퇴를 더욱더 부채질하게 된다.”

“나라는 영원히 강성할 수 없고 영원히 허약할 수도 없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강하면 나라가 강하고, 법을 만드는 자가 약하면 그 나라도 약해진다.”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통치의 근본은 무엇일까? 한비자가 말한 것처럼, 정치지도자들이 “법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국가관을 확립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본립도생(本立道生) - 근본이 확립돼야 정치를 비롯한 세상 만사의 도(道)가 발생한다.” 논어 학이편에 나온다.

기술인동우회 새 회장에 조정구 회원



· MBC 기술이사
· MBC미디어텍 사장

기술인동우회 새 회장에 조정구 회원이 선출됐다. 기술인동우회는 지난해 12월4일에 열린 송년모임에서 제10대 회장으로 조정구 회원을 선출했다.

조회장은 1969년 TV 공채 1기로 기술 부문에 입사한 뒤 기술인용국장과 기술이사를 지냈다. 그리고 MBC미디어텍 사장과 충주MBC 사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로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을 가르쳤다.

조회장은 부회장 1명과 이사 6명, 감사 2명, 그리고 총무 등 기술동우회 새 임원을 이달말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함달로 부럽도다! 월요 산악회

11월엔 부부동반 터키 그리스여행까지 다녀왔다
내년 봄엔 고희기념 동남아 여행 계획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앞에서. W가 뭐지? 시계방향으로 이원하, 이경재, 신원호, 김성환, 오인환, 유홍철, 정광수, 김종현, 최병태, 윤풍기, 윤풍기w, 최병태w, 정광수w, 김종현w, 김진홍w, 이원하w, 김진홍

2008년 2월부터 박명하, 박종규, 신원호, 이원하 등 고당 동기동창을 모태로 출발한 월요산악회는 회원이 불어 매주 월요일마다 회원 15명이 정기산행을 시작했다. 회비 만 원씩으로 뒤풀이를 하고 생일날이나 경조사가 있을때는 월요산행 날 당사자가 뒤풀이를 해 주기로 했다. 여유자금으로는 산행에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나누어 갖기도 했다. 2009년 12월부터는 여행경비로 산행 때 개인당 만원씩을 적립해 2010년 11월에는 15명이 제주, 낙양, 운대산, 개봉을 4박5일로 다녀왔다.

2012년 2월에는 11명이 칠보산, 내연산, 호미곶, 백암, 대관령 등 2박3일 여행을 하고 11월에는 7박9일로 18명이 터키와 그리스여행을 다녀왔다.(부부동반 7명, 나 홀로 4명) 여행 중 동심으로 돌아가 모든 걸 잊고 즐거워하는 모습들... 특히 부인들이 살림걱정 안하고 차려주는 밥상에서 왕비 대접? 받으니 제일 즐거워했다. 해마다 다녔으면 좋겠다면서...

지난해에 동해여행을 하였으니 올 봄에는 서해여행 계획을 세우고 내년 봄에는 고희(5명)여행으로 동남아 여행계획을 세우고 있다.

글/ 김진홍

회원동정



송재중(보도)

한국도로교통공단 방송본부장 취임

前MBC보도본부장. 지난해 11월 30일, 한국도로교통공단 상임이사(방송본부장)로 취임했다. 송이사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전국의 교통방송(TBN) 편성과 방송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한다. 임기는 2015년 11월까지 3년이다.



최명구(기술)

고양시 2012 자원봉사상 수상

고양시민감사관. 12월 5일 고양시로부터 2012 자원봉사상을 받았다. 최감사관은 2014년 9월까지 고양시 감사관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고양시에 거주하는 100여 사우회 회원들의 고양시 관련 고충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바라고 있다.



김종오(보도)

영안그룹 부회장으로 선임

前경인방송사장. 12월 1일, 모자제조의 세계적인 업체인 영안그룹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김부회장은 영안그룹에서 방송과 학교장학재단업무를 담당한다.



김영철(편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강원민방사장-前국회방송사장. 제4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12월 12일 취임식을 가졌다. 임기는 2014년 12월까지 2년. 김사장은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선길(편제)

제 61회 서울특별시 문화상 수상

청소년수련원 ‘아즈벨리 유스호스텔’ 원장. 12월 13일, ‘제61회 서울특별시 문화상(문화산업분야)’을 수상했다.

황원장은 MBC 재직중 다수의 애니메이션(장편 11편, 시리즈 26편) 프로그램을 기획, 연출했으며 1994년 퇴직후에는 후진양성과 애니메이션 발전에 크게 공헌한점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정수열(편제)

방콕 부르파대학 교환교수로 부임

극동대학교교수. 12월 20일, 태국 방콕에 있는 부르파대학 교환교수로 현지에 부임했다. 정교수는 올 2월말까지 태국 학생들에게 한국관련 과목을 지도한다.

김현철(편제)

안중근기념관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

재일인간자연과학연구소 고문. 12월 18일, 안중근기념관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김고문은 MBC 재직시절, 여러차례 안의사 관련 프로그램을 취재-방송한바 있으며 지난 9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안의사 홍보과정을 이수한바 있다.

김 용(전주ANN)

장녀 KBS 아나운서 성은양 2012 한국아나운서대회서 대상 수상

前전주MBC 아나운서부장. KBS 아나운서로 재직하고 있는 장녀 성은씨가 12월 7일 ‘2012 한국아나운서대회’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며 싱글벙글. 김성은 아나운서는 1993년에 KBS에 입사한 9년차 아나운서로 현재 KBS 2 라디오 ‘활기찬 새아침 김성은입니다’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민과 함께 행복한 포항MBC가 있습니다

【포항MBC 연중캠페인】

'지금은 동해안시대' / 지역의 힘이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함께하는 나눔의 세상, 포항MBC가 만들어 갑니다

포항MBC는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물품을 기증받아 필요한 사람에게 되파는 '행복한 가게',

어려운 이웃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희망 프로젝트 집 고쳐주기',

장애우와 시민이 함께하는 '사랑의 걷기 대회' 개최 등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지역사회와 세상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만드는 따뜻한 기업문화로

시대정신을 리드하는 창의적인 포항MBC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가게



희망 프로젝트 집 고쳐주기



사랑의 걷기대회

www.phmbc.co.kr

좋은친구 포항MBC